

보도시점 2026. 8. 19.(수) 석간 < 2026. 8. 19.(수) 10:00 >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신규펀드 결성도 역대 2위인 8.4조원을 기록,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
-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56.4%) 포함 전 업력, 전 업종(게임 제외) 투자 증가
- 비수도권 투자 2배 이상(+104.7%) 증가, 수도권(+49.9%) 증가율을 크게 상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19일(수)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 합산

1.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 8,676억 원으로,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2년을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33.0% 증가한 8조 4,366억 원으로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 금융에서 58.3%, 민간 부문에서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의 출자가 2조 6,06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400→100%)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은행이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 시 정책목적의 벤처펀드(모태 자펀드 등)에 대한 출자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하향(26.3)

< '22~'2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2.상	'23.상	'24.상	'25.상	'26.상	전년대비
신규 벤처투자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벤처펀드 결성	86,921	47,003	51,936	63,431	84,366	+33.0%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2. 업종별 벤처투자 동향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상위 업종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서비스 1조 8,600억 원(21.0%), 전기·기계·장비 1조 5,359억 원(17.3%), 바이오·의료 1조 5,041억 원(17.0%)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ICT 서비스 업종에 벤처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이하 AI) 솔루션 등 인공지능 활용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상반기에 비하여 ICT 제조(+143.3%), 전기·기계·장비(+90.4%), ICT 서비스(+62.2%)를 중심으로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반도체,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봇틱스 분야에 대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등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벤처투자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산운용 정보기관인 프레킨*(Preqin)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의 글로벌 벤처투자는 5,150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91%)이다. 이 중 약 70%가 AI·반도체 등 정보통신(이하 IT) 업종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6.8, Preqin) Venture Capital Q2 2026: Preqin Quarterly Update

< 주요 업종 벤처투자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2.上	'23.上	'24.上	'25.上	'26.上	전년대비
ICT제조	투자 금액	4,819	5,152	4,998	4,707	11,454	+143.3%
	비중	6.3%	11.5%	9.1%	8.2%	12.9%	-
ICT서비스	투자 금액	22,490	9,020	13,241	11,466	18,600	+62.2%
	비중	29.4%	20.1%	24.1%	19.9%	21.0%	-
전기·기계·장비	투자 금액	6,077	6,712	9,733	8,069	15,359	+90.4%
	비중	7.9%	14.9%	17.7%	14.0%	17.3%	-
바이오·의료	투자 금액	13,159	5,995	8,527	9,793	15,041	+53.6%
	비중	17.2%	13.3%	15.5%	17.0%	17.0%	-
합계	투자 금액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3. 업력별 벤처투자 동향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하, 7년 초과 기업에서 모두 투자 금액 및 피투자기업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1조 8,282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56.4% 증가하였다. AI·반도체·로보틱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대형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 기업은 16개사(4,218억원)인데 이 중 9개사(3,153억원)가 AI, 로보틱스 분야에 해당하였다.

중기부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초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창업 초기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 초기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우대하는 등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창업초기 분야 출자규모(억원): ('25.) 1,000 → ('26.) 2,000 (+2배)

< 업력별 벤처투자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2.상	'23.상	'24.상	'25.상	'26.상	전년대비
7년 이하	투자 금액	47,731	24,428	25,236	26,601	42,039	+58.0%
	기업수	1,680	1,181	1,378	1,065	1,221	+14.6%
	평균 투자금액	28.4	20.7	18.3	25.0	34.4	+37.8%
3년 이하	투자 금액	19,608	12,240	10,117	11,687	18,282	+56.4%
	기업수	889	668	743	499	643	+28.9%
	평균 투자금액	22.1	18.3	13.6	23.4	28.4	+21.4%
7년 초과	투자 금액	28,711	20,502	29,621	30,876	46,637	+51.0%
	기업수	654	672	1,034	932	1,114	+19.5%
	평균 투자금액	43.9	30.5	28.6	33.1	41.9	+26.4%
<합계>	투자 금액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기업수	2,305	1,831	2,382	1,962	2,296	+17.0%
	평균 투자금액	33.2	24.5	23.0	29.3	38.6	+31.8%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4. 지역별 벤처투자 동향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분석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수도권의 벤처투자는 3조 9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9%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밸리 등 AI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며 벤처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벤처투자는 1조 64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7% 증가하였다. 대전의 벤처투자 규모는 4,359억원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풍부한 기술개발(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명과학·우주항공 등 주력 신산업 분야에서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충북 지역도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반의 바이오·정밀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43.9% 증가한 1,012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2.상	'23.상	'24.상	'25.상	'26.상	증감률
수도권	서울	22,662	10,567	12,134	13,943	17,489	+25.4%
	인천	276	370	755	676	990	+46.3%
	경기	7,675	4,197	5,857	6,038	12,494	+106.9%
	소계	30,614	15,133	18,746	20,658	30,972	+49.9%
비수도권	부산	665	687	1,129	437	1,264	+189.3%
	대구	305	372	508	484	507	+4.8%
	광주	312	205	367	168	336	+99.5%
	울산	526	53	299	164	299	+82.5%
	대전	2,167	1,627	1,979	1,780	4,359	+144.9%
	강원	112	69	133	374	256	△31.6%
	충북	497	135	353	228	1,012	+343.9%
	충남	503	296	557	220	640	+191.3%
	전북	365	189	150	307	302	△1.8%
	전남	33	1	125	21	106	+404.4%
	경북	561	1,016	579	311	669	+114.9%
	경남	554	83	293	336	553	+64.5%
	제주	333	90	45	100	201	+100.7%
	세종	92	5	9	271	143	△47.1%
	소계	7,025	4,828	6,526	5,201	10,647	+104.7%
해외		3,893	2,080	2,720	2,095	3,672	+75.2%
합계		41,529	22,041	27,992	27,955	45,291	+62.0%

*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5. 벤처투자의 청년고용 효과와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규모의 확대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투자유치 이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 특히, 벤처투자 이후 증가한 고용 중에서 청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벤처투자가 청년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고용 변화 >

투자 연도	¹⁾ 투자유치 이후 고용 증감률	투자유치로 인해 증가한 고용인원 중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²⁾ 당해연도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23년	11.3%	59.7%	2.0%
'24년	11.0%	61.9%	1.1%
'25년	12.1%	62.4%	1.2%

* 1) 벤처투자 유치 전후 고용 증감, 2)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소득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28.12.31)을 삭제하여 **벤처투자**로 인한 양도 소득 비과세 혜택을 상시화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벤처투자의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선희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박상엽	(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책임자	주무관	최동영	(044-204-7733)
		담당자	팀 장	김건배	(02-3017-7050)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책임자	과 장	박준용	(02-3017-7055)
		담당자	부 장	윤형식	(02-2011-0727)
			선임조사역	권순성	(02-2011-0671)



참고 1 2026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 펀드결성 세부 현황

□ 벤처펀드 결성 실적

※ 벤처투자회사 · 조합 + 신기술금융사 · 조합 합산통계

(단위 : 억원)

구분		'22.上	'23.上	'24.上	'25.上	'26.上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10,803	6,751	9,232	10,278	16,274	+58.3%
	비중	12.4%	14.4%	17.8%	16.2%	19.3%	-
모태펀드	금액	3,564	2,337	2,435	2,886	6,163	+113.5%
	비중	4.1%	5.0%	4.7%	4.6%	7.3%	-
산업은행	금액	1,844	1,149	2,693	3,062	2,274	△25.7%
	비중	2.1%	2.4%	5.2%	4.8%	2.7%	-
성장금융	금액	4,375	2,007	2,673	1,815	5,325	+193.4%
	비중	5.0%	4.3%	5.1%	2.9%	6.3%	-
기타	금액	1,019	1,258	1,431	2,515	2,513	△0.1%
	비중	1.2%	2.7%	2.8%	4.0%	3.0%	-
민간부문	금액	76,118	40,252	42,703	53,153	68,092	+28.1%
	비중	87.6%	85.6%	82.2%	83.8%	80.7%	-
금융기관	금액	26,759	14,882	15,483	16,824	26,061	+54.9%
	비중	30.8%	31.7%	29.8%	26.5%	30.9%	-
연금/공제회	금액	4,795	1,076	2,530	6,320	4,195	△33.6%
	비중	5.5%	2.3%	4.9%	10.0%	5.0%	-
일반법인	금액	17,706	11,679	10,433	16,426	21,254	+29.4%
	비중	20.4%	24.8%	20.1%	25.9%	25.2%	-
VC(운용사)	금액	9,207	5,469	5,707	6,786	7,234	+6.6%
	비중	10.6%	11.6%	11.0%	10.7%	8.6%	-
개인	금액	15,676	5,803	6,316	4,335	6,686	+54.2%
	비중	18.0%	12.3%	12.2%	6.8%	7.9%	-
외국(법)인	금액	698	313	1,353	1,022	619	△39.4%
	비중	0.8%	0.7%	2.6%	1.6%	0.7%	-
기타	금액	1,277	1,031	881	1,440	2,043	+41.9%
	비중	1.5%	2.2%	1.7%	2.3%	2.4%	-
합계		86,921	47,003	51,936	63,431	84,366	+33.0%

□ 업종별 벤처투자 실적

※ 벤처투자회사 · 조합 + 신기술금융사 · 조합 합산통계

(단위 : 억원)

구분		'22.上	'23.上	'24.上	'25.上	'26.上	전년대비
ICT제조	투자 금액	4,819	5,152	4,998	4,707	11,454	+143.3%
	비중	6.3%	11.5%	9.1%	8.2%	12.9%	-
ICT서비스	투자 금액	22,490	9,020	13,241	11,466	18,600	+62.2%
	비중	29.4%	20.1%	24.1%	19.9%	21.0%	-
전기·기계·장비	투자 금액	6,077	6,712	9,733	8,069	15,359	+90.4%
	비중	7.9%	14.9%	17.7%	14.0%	17.3%	-
화학·소재	투자 금액	5,201	3,969	4,871	5,516	6,306	+14.3%
	비중	6.8%	8.8%	8.9%	9.6%	7.1%	-
바이오·의료	투자 금액	13,159	5,995	8,527	9,793	15,041	+53.6%
	비중	17.2%	13.3%	15.5%	17.0%	17.0%	-
영상·공연·음반	투자 금액	4,645	3,652	1,651	2,316	3,060	+32.1%
	비중	6.1%	8.1%	3.0%	4.0%	3.5%	-
게임	투자 금액	1,727	730	885	1,788	424	△76.3%
	비중	2.3%	1.6%	1.6%	3.1%	0.5%	-
유통·서비스	투자 금액	11,105	4,179	4,539	5,522	8,598	+55.7%
	비중	14.5%	9.3%	8.3%	9.6%	9.7%	-
기타	투자 금액	7,217	5,521	6,410	8,299	9,835	+18.5%
	비중	9.4%	12.3%	11.7%	14.4%	11.1%	-
합계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1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년 → 10년 이내)

-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법인이 직·간접 출자하는 경우, ②개인·VC·기금운용법인이 투자 후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VC·기금운용법인 등)·제14조(개인))
- (개선)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년 이내 → 10년 이내)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2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현행)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8년 일몰 예정(조특법 제13조, 제14조)
- (개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일몰 폐지)

3 법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기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 * 벤처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개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5% → 7%)
 -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